

1980년대 구로지역 민중교회와 노동운동 : 민중교회의 형성과정과 역할에 관한 고찰*

박 철** · 이 종 구***

이 논문은, 1980년대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중교회에 대한 분석이다. 정치에 초연하며 포교와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기성교회와 명백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민중교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원인을 살피고, 이들이 1980년대 구로지역 노동운동에 있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됐는지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이다. 기독교 단체로서 197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 정권의 탄압으로 약화되었다. 그 이후로 노동운동사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노동운동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 연구는 7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기독교 노동운동이 갑작스럽게 소멸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산업선교회 이후에 등장한 기독교 노동운동은 민중교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구로지역의 민중교회들은 기성교회의 친정부적인 태도를 부정하고 교회 성장주의를 배척하면서 기존 교회가 갖는 교리적 틀을 깨는 개혁적인 교회들이었다. 이들은 저항적 노동운동을 추구하고 교회의 성장보다는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와 개혁을 지향하면서 포교의 목표를 신자확충이 아니라 해방적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과제명: 산업변동과 로컬리티 기억의 재구성, 연구과제번호: NRF-2013S1A3A2054223), 연구지원을 통해 진행된 2015년도 석사 논문인 ‘1980년대 구로지역 민중교회 연구: 기독교적 가치와 노동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하여 수정·발전시킨 것이다.

** 제1저자,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missiondream@hanmail.net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cklee@skhu.ac.kr

초고접수 2015. 1. 10, 심사결과 2. 7, 수정원고 접수 2. 13, 게재결정 2. 17

주체로서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민중교회는 1980년대 초반 기독교내에서 개혁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노동운동을 위해 교회를 필요로 하는 평신도 사이에 맺어진 연대를 통해 시작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민중교회는 노동운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였으며, 비합법적 연대운동의 형태를 지닌 노동운동과 결합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중교회의 형성과정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연구는 1980년대 학생운동 중심의 노동운동사에 빠져있는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계의 노동운동을 밝힘으로서 한국노동운동사의 폭을 조금 더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민중교회, 노동운동, 에큐메니즘, 민중, 합법성

I. 문제제기와 접근방법

한국노동운동사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1970년대 활발했던 종교계의 노동운동 참여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 국가의 탄압과 학생운동가들의 현장이전에 의해 그 역할이 약해지거나 거의 단절된 것으로 평가한다(이원보, 2007: 250). 그만큼 1980년대 노동운동은 종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동운동사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도시산업선교회와 카톨릭노동청년회(JOC)의 활동이 주 내용을 이루는데 반해, 1980년대는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현장 참여에 대한 기술이 중심을 이루며 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언급은 드물다.

이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반성에서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전개된 종교계의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물론 1970년대에 비해 80년대는 노동운동에 대한 종교계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동운동사에서 거의 자취를 감춰버릴 정도로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전보다 더 극심했던 1980년대 정치적 상황에서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집단이 종교계였기 때문에 여전히 공식적인 활동과 대외행사는 주로 종교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1980년대 전개된 종교계의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로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중교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민중교회는 국가의 탄압에 의해 영등포산업선교회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기독교 노동운동으로, 80년대 초반 사회적 약자였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을 실천했던 교회를 의미한다. 즉, 민중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억압받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위해 공단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를 일컫는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문제는 정치현실과 무관했거나 친정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성교회와 달리 저항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민중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의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의 목표는 1970년대에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운동을 사실상 주도했던 도시산업선교운동이 정권의 탄압으로 퇴조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노동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민중교회가 형성된 과정 및 지역 노동운동에서 수행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에 있어 구로라는 특수한 지역을 선택한 것은 당시 그곳이 전국에서 민중교회가 가장 많이 형성된 곳이었고 노동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서 민중교회와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70~80년대에 기성교회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세속적 권위에 대한 비판을 억제함으로써 보수정치를 지원하는 잠재적 기능을 수행했으며, 반공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였다. 그들은 이러한 정치적 지향과 함께 개교회주의에 입각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포교활동으로 신자를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많은 사람들을 개 교회¹⁾의 신자들로 끌어 모아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표방하며 교회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이들 기성교회들은 70~80년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거의 모든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기성교회의 흐름과 달리 정치적 중립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의 횡포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 개인 구원 중심적인 신앙

1) ‘개 교회’는 어떤 다른 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을 갖는 개별 교회를 의미한다.

의 풍토 비판하고, 교회 성장주의를 배척하며 기존의 교회가 갖는 교리적 틀을 깨는 개혁적인 민중교회가 등장하게 된다. 민중교회는 친정부적 정치지향을 벗어나 저항적 노동운동을 추구하고,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와 개혁을 지향하면서 포교의 목표를 신자확충이 아니라 해방적 주체로서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혁적 교회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고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친정부적 성향과 반공적 이념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을 추구하며 한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했던 기성교회와 달리,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사회 속으로 흠어드는 교회를 추구했던 민중교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출현하게 됐는가를 살피고, 당시 구로지역 노동운동에서 그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사실 발견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 추진된 이 연구는 산업선교와 민중교회운동에 참가한 목회자와 실무자, 그리고 평신도의 구술증언과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수단을 위해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가한 인사들을 우선 접촉하여 중요한 당사자들을 소개받았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협력자의 네트워크를 확산시켜나갔다. 자료의 해석에서는 기존 교회사 연구, 노동운동 연구의 성과를 검토해가며 새로운 사실과 의미를 발견하려 시도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신학적 접근

민중교회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이 목회자나 신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들이며 신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민중교회 관련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황홍렬의 업적이 있다(황홍렬, 2004). 이 연구는 신학적 연구로써 민중교회의 역사와 이러한 역사 속에 나타난 민중교회의 선교적 의의를 찾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민중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목회자로 민중교회를 직접 담임했던 노창식의 석사논문(노창식, 1997)은 민중교회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다섯 가지 차

원(자기성찰, 기도의 가치, 치유, 내면적 만족, 성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중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또 다른 목회자였던 이재호의 연구(이재호, 1997)는 민중교회가 역사적으로 수행했던 선교의 의미를 다루며,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회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그 외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선교신학과 교회론을 다루는 글들로 민중교회가 갖는 선교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등을 다루는 신학적인 글들이다.

2. 사회학적 접근

신학적 접근 외에 두 편의 사회학적 접근이 있다. 김세훈의 연구논문(김세훈, 1994)은 1980년대에 생겨난 민중교회가 10년도 안되어 그 양적인 면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교회의 내적·외적 요인들로 나눈다. 민중교회의 등장에 대한 소개에 짧은 지면을 할애한 후 민중교회가 침체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외적인 요인으로는 기독교 일반의 침체와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 변화에 따른 민중교회의 노동운동지원 기능 약화를, 내적인 요인으로는 민중교회의 이념적 토대인 민중신학이 갖는 한계인 교회론의 부재가 초래한 교회로서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원적인 조직 구조에서 오는 갈등과 불안정성을 살핀다. 최중철의 연구(최중철, 1994)는 민중교회의 종교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민중교회가 속한 정치 환경의 변화, 민중교회의 교리적·이데올로기적 변화, 종교적 의례의 강화, 그리고 교회 조직구조의 변화에서 찾는다.

3. 평가

신학적인 접근의 글들은 대부분이 선교론과 교회론적 관점에서 민중교회의 쇠퇴 원인과 발전방향, 그리고 민중교회의 선교론과 교회론의 정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교회 내

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민중교회의 위기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이는 주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국한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민중교회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주로 다루는데 반해, 민중교회 초기 1980년대 활발했던 민중교회의 사회 변혁적 활동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 당시 민중교회가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탐구는 전무하다고 하겠다.

사회학적 접근의 글들도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앞서 소개한 두 편의 연구 또한 민중교회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쇠퇴의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출 뿐 노동운동과 민중교회의 관련성이 갖는 의미나 사회학적인 함의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고 하겠다. 민중교회의 변화 원인을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 초기 민중교회의 형성과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1980년대 민중교회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들이 갖는 사회적 의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민중교회와 노동운동의 관계가 갖는 의미와 여기에서 드러난 종교의 사회 구성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III. 에큐메니즘과 민중교회의 형성

이 연구에서는 민중교회를 사회과학적 대상으로서 초월적 존재에 의해 형성된 신앙공동체라기 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산물로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교회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전통적 요인과 한국의 시대상황이라는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에 의해, 그리고 교회를 구성한 초기 멤버들에 의해 시작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여기서 우선 관심 있게 살펴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추구했던 기독교적 가치관인데, 이러한 목회자들의 가치관은 또한 한국 기성교회의 반성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기독교적 전통과 시

대적 상황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한 반성에 의해 형성된 목회자들의 가치관은 단순히 의식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민중교회였다. 다음에서는 먼저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지향했던 기독교적 가치인 에큐메니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민중교회 목회자들의 이념적 기초인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즘(Ecumenism)’은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 movement)’이라고도 하는데,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라는 용어는 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했다. 오이쿠메네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oikos)’에서 파생된 말로 ‘사람이 사는 온 세상(the whole inhabited world)’을 의미한다(권진관, 2013; 김경재, 2013; 안승오, 2011). 따라서 이러한 어원을 갖는 에큐메니즘은 인류와 세상에 관심을 갖는 정신과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에큐메니즘은 ‘모든 교회를 포함하여, 전 인류와 세상을 향해 올바른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의 정신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의 책임은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세상 안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에큐메니즘과 에큐메니칼 운동 기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에큐메니즘이란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의해 형성되는 기독교적 가치로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사회참여를 지향하며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 흐름’이다. 이는 이미 성서에 기초²⁾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체화된 개념이지, 어느 순간 특정 사람이나 기구에 의해 형성된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 기구³⁾란 이러한

2) 모든 기독교적 가치는 ‘성서’와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왜냐하면 성서와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 이러한 기초를 벗어난 가치나 활동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성서’와 ‘그리스도’는 보편적 진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곳으로부터 모든 이해가 시작되며 또한 그곳에서 연원을 찾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큐메니즘 또한 ‘성서’에 기초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3) 에큐메니칼 운동 기구는 해외기구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세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정신과 가치가 전달되고 학습될 수는 있지만 에큐메니즘은 이러한 기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⁴⁾을 기반으로 활동한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했던 기독교적 가치를 평가하자면 에큐메니즘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터뷰와 민중교회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목회자들의 활동이 에큐메니칼 운동기구들에 영향 받은 바가 크며,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성서의 기초위에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선교와 사회참여, 억압받는 자의 해방 등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출현하는 과정과 이들의 협력으로 어떻게 민중교회가 형성되는지를 목회자들과 교회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 인용된 구술자들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이름	성별	80년대 소속 교회 및 단체	교단	유형	출신학교
1	이광일	남	신명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회자	한신대학교
2	전성표	남	이웃사랑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회자	한신대학교
3	이근복	남	영등포산업선교회, 성문밖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목회자	장로회 신학대학교
4	강우경	남	디딤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목회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5	노창식	남	신명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회자	한신대학교
6	임진철	남	이웃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목회자	한신대학교

기독교학생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동아시아 기독교협의회(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EACC)와 그 후신인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A), 도시산업선교(Urban-Industrial Mission: UIM) 등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KNCC), 도시산업선교회(UIM),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SCF),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EYC, EYC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청년들(감청, 장청, 기청)이 연합한 조직이다) 등이 있다.

4)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상증(박상증 편저, 1992)을 참고할 것.

사례	이름	성별	80년대 소속 교회 및 단체	교단	유형	출신학교
7	최장일	남	구로은강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	목회자	총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8	이재운	남	남부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	목회자	감리교신학대학교
9	이도훈	여	이웃교회	(해당사항 없음)	고등 학생	영등포고등학교
10	노항래	남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	(해당사항 없음)	활동가	서울대학교
11	정우창	남	이웃교회	(해당사항 없음)	활동가	서울대학교
12	신동욱	남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	(해당사항 없음)	노동자	검정고시
13	인태영	남	남부교회	(해당사항 없음)	활동가	감리교신학대학교
14	한명희	여	한국기독교노동자 총연맹	(해당사항 없음)	활동가	(미확인)

2. 개혁적 신진 목회자의 출현과 민중교회의 형성⁵⁾

1) 신명교회⁶⁾

신명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명의 목사는 이광일과 노창식이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었던 이광일 목사는 70~80대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향했던 목회자였다. 그는 산업선교회, 선교교육원, KSCF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 가운데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거치면서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지를 고민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 노창식 목사는

5) 본 연구에서 6명의 목회자와 5개의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던 80년대 전반기부터 활동한 목회자들과 민중교회들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독교와 노동운동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러 가지 상황적 한계로 연구자가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그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접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연결 가능한 수준에서 대상을 선정하였다.

6) 이광일(2014년 04월 18일 16:20분~18:40분 면담, 장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실, 면담자 박철), 노창식(2014년 04월 29일 14:30분~16:20분 면담, 장소: 신명교회, 면담자 박철) 인터뷰.

한신대학교의 기독교학생운동을 통해 사회 참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실시하는 노동관련 프로그램과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었을 때 감옥에서 사회 과학 서적들을 접하게 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가 자리 잡은 삶의 자리가 기독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광일 목사는 신명교회가 해체된 시기에 이를 다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노창식 목사는 이후 이러한 신명교회를 지속해나가며 80년대 구로지역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명교회는 1977년에 노동 아학을 시작으로 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는데, 목회자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이종원 목사를 부름으로써 교회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교회 구성원 중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외부에서 학내 문제로 체포되면서,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젊은 신자들과 목회자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교회가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후 이광일 목사와 함께 신명교회 교인 중 한 사람이 이대 근방에 서점인 신명문화사를 세우고 이종원 목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신명교회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때 노창식 목사도 함께 출석하게 된다. 하지만 교인 중 몇 명이 광주 항쟁의 상황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서울지역에 배포하다 체포되어 서점도 문을 닫게 되면서 예배 모임도 어려워지게 된다. 당시 서대문에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에 산업선교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던 이광일 목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며 이전 사람들을 모으고자 했다. 그 결과 기존의 신명교회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됐고, 84년도에 신길동으로 들어가면서 노창식 목사가 담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로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신명교회는 보다 본격적으로 구로지역 노동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2) 남부교회⁷⁾

남부교회를 함께 이끌어간 목회자는 이재운이다. 이재운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

7) 이재운(2014년 11월 18일 10:50분~12:2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인터뷰.

니며 미션스쿨인 중고등학교를 거쳐 자연스럽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신학대학교 시절 군사독재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항상 고민이었던 그는 EYC, 감청, KSCF와 같은 기독교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구두 닙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넝마주의 촌에서도 7~8년 생활 하면서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경기도수원산업선교회에 실무자로 들어가 실무자 교육을 받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남부교회는 경수도시산업선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이재운목사가 당시 경수도시산업선교회로 부임할 때 이미 그곳은 국가의 탄압과 이전 실무자의 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활동을 어떻게 꾸려갈까 고민하던 중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시 독산동 지역에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자취방 소모임을 했다. 이러한 모임이 13개 정도가 있었는데 너무 많아 관리가 힘들어 연립주택을 얻어 합숙소를 열었다. 그러면서 야학(한문, 신문보기, 노동법)을 했는데 출입 인원이 40~50명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수산업선교회를 활용하자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그곳 사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빈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된다. 이후 인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번듯한 교회 건물을 얻어달라는 요구가 형성되었다. 구성원들이 이재운 목사와 다른 산업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체 돈으로 지하 월세를 얻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82년에 공식적으로 남부교회가 시작된다. 남부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경수산선 실무자였던 이재운 목사가 담임을 맡게 됐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시작하게 된다.

3) 구로은강교회⁸⁾

최장일 목사는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교회 선배들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시절 신앙적인 고민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고치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면서 신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

8) 최장일 & 임진철(2014년 11월 05일 11:00분~14:30분 면담, 장소: 계기동 약령시장 세우빌딩, 면담자 박철), 최장일(2014년 11월 05일 17:30분~21:0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인터뷰.

고 그는 대학생 때 학생운동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EYC)등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삶의 과정 속에는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구로은강교회는 최장일 목사가 부임하기 전 전임자가 군목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목회자에 대한 요구가 생기자 교회 내에서 협의를 거쳐 자신들과 어울리고 생각되는 최장일 목사를 청빙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최장일 목사는 주위 선후배들과 논의를 거쳐 지금 교회가 사회운동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구로은강교회에 86년도에 부임하게 된다.

구로은강교회는 군목으로 가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교회 담임 경력이 필요하던 마포은강교회의 전도사와 당시 노동운동을 위해 교회를 필요로 하던 마포은강교회 청년회의 학생들(이들은 감청의 핵심 멤버들이었다)이 함께 시작한 교회이다. 당시 마포은강교회 청년회에는 감리교청년회(감청)의 핵심적인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다. 마포은강교회는 구로은강교회에 대해 월세와 쌀 등을 지원했고, 모든 인사권도 갖고 있었다. 구로은강교회는 마포은강교회에서 직접 온 1~2명의 사람들과 이들과 관계된 감청 회원들이 모은 신자로 구성됐는데, 최장일 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기존 신자들이 인천 쪽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와 구성원들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 새로운 신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들로 감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구로은강교회 활동을 통해 교회를 출석하게 된 10명의 노동자들이 교회를 구성했다. 구로은강교회는 시작부터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멤버들에 의해 형성됐지만 목회자의 활동이 구성원들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에 민중교회라는 성격이 부각되지 않았다. 86년 1월부터 최장일 목사가 부임하고 다른 민중교회와 연대하게 되면서 구로은강교회는 민중교회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갖게 된다.

4) 디딤돌교회⁹⁾

강우경 목사는 대학생시절에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SCF)이 주관한 수련회에 참가한 이후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을 통해 사회 참여라는 눈을 갖게 되며, 청년기에 5.18 광주항쟁과 전두환 정권의 압제를 겪으면서 기독교 학생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서적들과 강연들을 통해 진보적인 기독교적 가치들을 배우게 된다. 그와 같은 활동들 속에서도 어릴 때부터 형성된 신앙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써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개혁적 목회자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원 입학 이후 현대신학연구회 활동을 통해 진보적인 신학들을 계속 공부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노동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과 훈련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민중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디딤돌교회는 강우경 목사와 검정고시 야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된다.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강우경 목사가 노동목회자 훈련을 받기로 계획했던 것이 산선의 재정 악화로 1년이 미뤄지게 되자 이러한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교회 목회 활동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강우경 목사는 다시 교회를 알아봐야 했다. 그러던 중 그는 야학을 하기 위해 교회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의 섭외를 받게 된다. 섭외를 요청했던 그룹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야학을 하던 영락교회 대학부 출신 청년들과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되자 야학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야학을 하면서 형성되었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 교회를 개척하자는 의견을 모으게 되고 목회자를 수소문 하던 중 강우경 목사 사모가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닌 사실을 알게 되어 강 목사를 찾아오게 된다. 논의 과정을 거쳐 1년 후에 개척할 것을 합의한 후 강우경 목사는 신대방동에 있는 신목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된다. 하지만 야학 팀의 리더격인 학생이 8월에 석사장교로 군대를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그렇게 되면 모임이 와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5월부터 강우경 목사가 수요일 저녁 모임에 성경공부를 같이 하게 되고, 1985년 10월 첫 주에 신목교회를 사임하고 야학 팀과 디딤돌교회를 시작하게 된다.

9) 강우경(2014년 04월 28일 14:00분~15:30분 면담, 장소: 철산역 카페, 면담자 박철), 강우경(2014년 11월 14일 12:30분~14:50분 면담, 장소: 철산역 카페, 면담자 박철) 인터뷰.

5) 이웃교회¹⁰⁾

임진철 목사는 어렸을 때 부패한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동교회 대학부 모임의 참여를 통해 그러한 의식을 더욱 키워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 강원용 목사를 만나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경동교회 대학부 활동인 ‘젊은 둘째’ 모임을 통해 다양한 서적들을 공부하고, ‘사상계’를 통해 사회 참여적인 개혁적 목회자들의 사상을 접했으며, 한신대에 진학하면서 KSCF와 EYC 같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목회자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민중교회를 선택하게 된다.

이웃교회의 경우 임진철 목사는 경동교회의 청년회인 ‘젊은 둘째’ 그룹에서 친분을 가진 사람들 20여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 젊은 둘째는 당시 서울, 연·고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함께 했던 그룹이었다. 당시 경동교회 담임이 강원용 목사였는데,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강원용 목사가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게 되자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 그때 젊은 둘째의 몇몇 사람들도 강원용 목사의 태도를 반대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당시 임진철 목사도 선봉에 섰다.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 서대문에서 사무실을 빌려 성경연구모임을 하던 중 구로영등포 지역의 민중교회 개척운동에 합류하게 되면서 85년 5월 임진철 목사를 대표로 이웃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러한 이웃교회의 설립은 ‘젊은 둘째’의 몇몇 멤버들과 노동운동 중 내부에서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민중교회는 학생운동가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 및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목회자들은 그들과 함께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민중교회의 활동을 센터 중심의 산업선교 방식과 구분하면서, 노동자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로서, 외국 자본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립적, 자주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가치를 토대로 당시 노동자 및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된

10) 임진철(2014년 05월 07일 11:00분~13:1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정우창(2014년 08월 07일 14:00분~16:0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인터뷰.

다. 이렇듯 민중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에 직면한 젊은이들이 사회참여와 변혁의 뜻을 품고 서로에 대한 연대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다.

3. 소결 :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구로지역 민중교회 운동

80년대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친 에큐메니즘의 핵심가치는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사회참여, 그리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독교 기구들과 운동들이 형성되었다. 민중교회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구나 기관이 아닌 교회 형태로 시도된 최초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할 것이다. 80년대 경동교회나 제일교회와 같은 진보적 교회들과 민중교회의 차이는 교회의 시작 자체가 이러한 에큐메니즘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들과 활동이 ‘성도’에 집중하기 보다는 ‘민중’을 지향했다는 점이다.

구로지역 민중교회들은 억압적인 시대 상황과 이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 속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목회자들과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초기 회원들의 요구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개혁적 신진 목회자와 초기 창립회원의 결합을 통한 민중교회의 형성은 우선 80년대 정치적 구조 속에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자원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활동가와 노동자가 자신들의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합법적 기구와 공식적인 공간이 필요해 목회자를 선택하여 청빙하고,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들 또한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시킬 교회 구성원들이 필요해 활동가와 노동자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 원인과 더불어 문화적 요소로서 노동자를 지향하는 ‘민중’의 이념이 목회자와 구성원을 연결했던 것이다.

민중교회의 특징은 초기 구성원들이 노동운동을 지향하였다는 점과, 교회 자체가 이러한 활동과 맞물려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민중교회는 교회형태를 가졌지만, 그 초기 형성 과정의 영향으로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운동 조직으로서

의 성격이 강했다. 즉 민중교회는 기성교회와 같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요구에 의해 종교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혹은 그러한 포교활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맞물리면서 구성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종교적이기 보다는 사회운동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민중교회에서 교회를 시작 하자는 요구가 목회자들에게서 보다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에게서 먼저 제기되었고, 목회자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민중교회를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민중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그 목적과 구성이 종교조직이기 보다는 노동운동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크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는 이렇게 형성된 민중교회가 1980년 구로지역 노동운동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IV. 1980년대 구로지역 민중교회와 노동운동

1. 민중교회의 합법성과 비합법적 노동운동¹¹⁾

83년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탄압이 일 층 강화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민중교회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모여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장소가 되었다. 당 시에도 민중교회는 종교 시설로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합법성은 에큐메니칼 운동 진영에 의해 형성된 세계적 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인정 된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보수적이고 반공지향적인 기성교회가 만들어낸 기독교의 성역화에 따른 결과였다. 즉, 정부도 교회의 공식적 예배나 활동을 억압했을 때 ‘종교탄압’ 시비에 말려들 수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중교회는 모두 이러한 기성 교단에 소속된 교회였고, 교회라는 상징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속 권력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11) 1980년대 전개된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인 소그룹활동과 가두투쟁 등에 대한 내용은 유경순 (유경순, 2012; 유경순, 2013)과 은수미(은수미, 2006)의 글을 참고.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반공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교회를 국가 전복세력으로 몰아갈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개개의 민중교회가 갖는 특성이 아니라 ‘교회’라는 상징이 발휘한 효과이며, 민중교회도 기성교회가 만들어낸 ‘교회’라는 합법적 울타리 안에 놓여있었으므로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강인철, 2012; 강인철, 2013). 즉 1980년대 민중교회의 합법성과 공식성은 목회자들이 갖는 에큐메니칼 운동진영의 네트워크 및 기독교 사회운동이 만들어낸 교회라는 사회적 위상, 그리고 기성교회가 형성한 정치적 성역으로서의 ‘교회’라는 상징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합법성이 교회라는 특정한 상징과 결합된 것은 권위주의적 국가가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합법성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의해 발현된 교회의 특성이었다.¹²⁾

이렇게 형성된 민중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예배 공간인 ‘교회’라는 물질적인 공간을 제공하게 한다. 교회라는 합법적 공간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물질적 공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10평 남짓한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은 권력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생각을 교류하고,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노동운동에서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민중교회 공간이 갖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80년대 국가의 탄압이 극심했던 당시 시대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 당시 활동가들은 시대가 ‘절박한’ 때였고, 항상 감시가 따라다녔으며, 국가기관의 감시뿐만 아니라 주위 일반 사람들의 의심과 신고가 일반적이었던 때였다고 증언한다. 당시 이러한 현실 속에 개인이 갖는 심리 상태는 불안과 초조함이었고, 감시를 피해 자신을 스스로가 검열하는 상태였다. 구로공단 내에 어디에도 안정적인 공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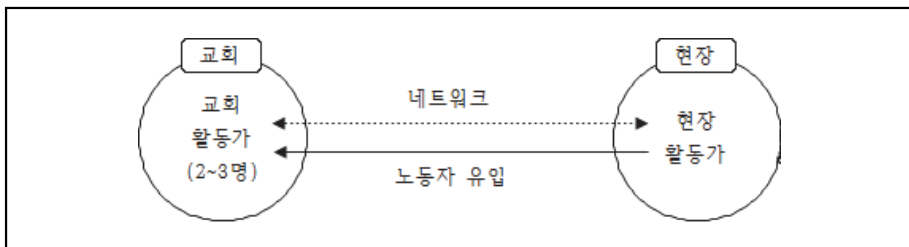
12) 1970년대 또한 기독교 조직이 갖는 합법성이 존재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이 바로 이러한 합법성 아래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을 추구하던 기존의 기독교 운동단체들이 이미 외부에 알려지고 국가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도시산업선교회는 문을 닫게 된다. 민중교회는 교회 조직이 갖는 이러한 합법성에 기초하여 80년대 초 선교센터나 기구가 아니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교회 형태로, 그리고 노동자들이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단 지역에 세워졌다는 특성을 갖는다.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주위의 시선을 피하고 자기 검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민중교회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당시 활동가들은 인터뷰 중에 민중교회가 ‘피난처’와 ‘안식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활동과 상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자유로운 물질적 공간이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갖는 합법성에 의해 제공되는 민중교회라는 자율적인 공간은 당시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우선 민중교회 공간은 비공식적 서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 민중교회는 목회자들의 도움 아래 비합법적인 서클활동 및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동가들이 권력의 감시를 피해 노동자들을 만나 교육하고 의식화 시킬 수 있게 했으며, 비밀서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상황과 특정 쟁점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 할 수 있게 했다. 즉, 민중교회 공간은 비밀리에 노동운동 위한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하며, 상황을 탐색하고, 성공적인 운동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는 적진 깊숙이에 자리 잡은 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음은 인태영과 노향래의 인터뷰¹³⁾에 근거해 재구성한 그림으로, 당시 교회와 현장 간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를 동원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민중교회와 현장 간 관계



13)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노향래(2014년 08월 01일 10:00분~11:40분 면담, 장소: 여의도 은빛기획사무실, 면담자 박철)

민중교회의 대략적인 구조는 목회자, 활동가 2~3명, 다수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회 활동가들은 주중에 민중교회에 상주하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이들은 공장 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현장에서 위장 취업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주위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인 노동자들에게 교회를 소개시킴으로써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석하게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관심 있어 하는 몇몇 노동자들을 선별하여 심화과정을 만들어 의식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목회자, 교회 활동가, 현장 활동가,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 교제, 소풍, 체육대회, 문화제 및 집회, 시위 등의 연합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민중교회가 갖는 합법성을 기반으로 교회 공간을 비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중교회는 또한 가두시위나 집회, 전단지 배포를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다. 민중교회가 갖는 공간의 합법성은 국가의 감시를 피해 시위에 필요한 화염병을 만드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으며¹⁴⁾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전단지를 복사, 보관하고 배포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때 투쟁에 관한 전단지를 민중교회 구성원들(당시는 사랑교회, 남부교회, 신명교회만 공단에 있을 때였다)이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이러한 활동을 했고,¹⁵⁾ 또 다른 예로 이웃교회는 한겨레신문이 발족하면서부터 신문을 배포하는 지부역할을 했다.

민중교회가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이처럼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에큐메니즘에 입각한 목회자라는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성교회와 달리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구로 공단 내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비밀을 보장

14) 강우경(2014년 11월 14일 12:30분~14:50분 면담, 장소: 철산역 카페, 면담자 박철), 정우창(2014년 08월 07일 14:00분~16:0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15)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턴뷰 면담자 박철)

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비합법적 노동운동을 지원하게 된다. 즉, 목회자들의 활동가들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무엇보다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공단 내에서 노동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¹⁶⁾. 경찰들이 교회에 침입하려고 할 때 목회자들이 ‘여기는 교회로 활동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보호막이 되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경찰들도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¹⁷⁾ 바로 이러한 자원들이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교회로 견인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적 공간을 두고 목회자와 활동가간 갈등이 존재했다. 몇몇 활동가들은 공식적 교회 공간에 대해 외피론, 조건활용론과 같은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단지 운동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으며,¹⁸⁾ 목회자들은 활동가들의 이러한 태도에 비판적이었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예배 참석과 교회 출석을 요구하였다.¹⁹⁾ 군사 정권에 의한 억압적 현실에 의해, 그리고 운동의 대상으로써 민중인 노동자를 향하는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양쪽 진영이 관계를 가졌지만, 교회 공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민중교회의 민중(노동자)지향과 노학연대²⁰⁾

80년대 구로지역 노동운동의 특징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연대에 의한 연대 투쟁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외곽지원과 대대적인 노동현장으로의 투신에 의해 노동운동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

16) 최장일(2014년 11월 05일 17:30분~21:0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 터뷰 면담자 박철)

17) 강우경(2014년 11월 14일 12:30분~14:50분 면담, 장소: 철산역 카페, 면담자 박철)

18) 정우창(2014년 08월 07일 14:00분~16:0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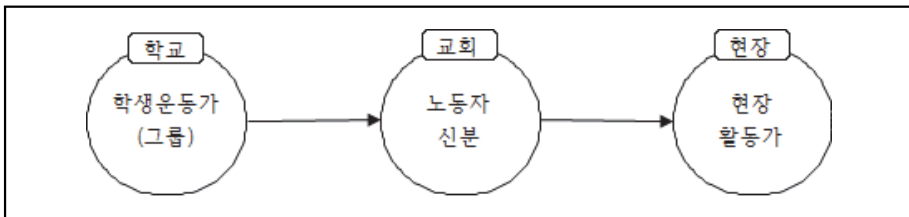
19) 노창식(2014년 04월 29일 14:30분~16:20분 면담, 장소: 신명교회, 면담자 박철)

20) 1980년대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노학연대에 대한 연구는 구해근(Koo, 2002), 은수미(은수미, 2006), 유경순(유경순, 2002)을 참고.

만 이러한 현장 투신은 노동현장에 대한 정보부족, 노동자들과의 접촉과 교육활동에 대한 제약,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을 위한 공간의 부재 등과 같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면에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활동가들에게 민중교회를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돕는 교두보로서 작용했다. 학생운동 그룹이 민중교회에 들어왔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 그룹이 나가고 다른 그룹으로 교체되는 일들도 있었으며, 현장운동을 하기 위해 학생운동가들이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민중교회를 찾기도 했다.²¹⁾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민중교회와 현장이전



활동가들이 민중교회로 유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로 민중교회가 활동가들과 기존 구성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또한 현장운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구성원들은 구로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노동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유입되는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활동가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교회 내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됐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노동자들을 통해서도 사업장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됐다. 민중교회에는 ‘생활 나눔’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한 활동으로도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이 전달되곤 했다.

21) 노창식(2014년 04월 29일 14:30분~16:20분 면담, 장소: 신명교회, 면담자 박철), 최장일 & 임진철(2014년 11월 05일 11:00분~14:30분 면담, 장소: 제기동 약령시장 세우빌딩, 면담자 박철), 최장일(2014년 11월 05일 17:30분~21:0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둘째로 민중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물질적인 공간을 제공했다. 활동가들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너무도 많았다. 민중교회는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줬다. 당시 민중교회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들은 풍물반, 기타반, 탁아소, 야학, 세탁소, 한자반, 문화 활동반, 그리고 연합 강연과 집회 및 체육대회, 등산대회, 수련회(전익상, 1989)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됐다.

셋째로 민중교회는 활동가들의 활동 대상인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민중교회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노동자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출석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입되는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교회에 정착해서 정기적으로 나온 노동자의 수는 개 교회별 평균 10~20명 내외였다. 지금 기준에선 적은 수였지만, 당시 노동운동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러한 수의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녔다.²²⁾ 그밖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노동자 수는 상당했다. 물론 짧은 기간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누적적 효과를 생각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였다.

다음으로는 민중교회가 활동가들에게 제공한 자원들 외에, 노동자들에게 제공한 자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민중교회는 시골에서 올라와 오갈 데 없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해줄 목회자만이 아니라 고민을 함께 나눌 동료²³⁾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성교회는 노동자들을 위한 돌봄이나 교육이 없었고 그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도 부족했다²⁴⁾. 민중교회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목회자와 동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건인했다.

둘째로 민중교회는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다.

22) 노항래(2014년 08월 01일 10:00분~11:40분 면담, 장소: 여의도 은빛기획 사무실, 면담자 박철),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23) 여기서 동료들은 일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신분인 활동가들을 포함한다.

24) 이광일(2014년 04월 18일 16:20분~18:40분 면담, 장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실, 면담자 박철)

당시 노동자에게는 고된 일과와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적 교양을 배우고, 익히고, 오락을 즐길만한 기회가 적었다. 민중교회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셋째로 민중교회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민중교회는 노동상당소와 같은 역할도 했는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나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역할, 그리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했다.²⁵⁾

민중교회가 갖는 다양한 자원은 활동가와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노동자와 활동가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활동가에게는 민중교회가 노동현장으로 이전하는데 활용할 다양한 정보, 활동의 대상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교육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갈 활동가 등을 제공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노학연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민중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활동가와 노동자에게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형성하게 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진행된 노동자 교육을 통해 의식화가 이루어졌다.

민중교회에서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청년’²⁶⁾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²⁷⁾ 즉, 민중교회 노동청년으로 노학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청년은 활동가와 노동자가 서로를 수평적인 위치에서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 일

25) 노창식(2014년 04월 29일 14:30분~16:20분 면담, 장소: 신명교회, 면담자 박철)

26) 여기서 ‘노동청년’이라는 용어는 외부 행사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었다. 노동청년은 목회자와 전도사를 제외한 교회 구성원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본 연구에서는 기성교회의 청년들과 다른 정체성으로서, 일반 노동자들과 다른 정체성으로서, 그리고 학생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도 다른 정체성으로서 민중교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개념으로 ‘노동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노동청년회’라는 공식적인 모임이 교회마다 신명교회가 85년도에 나머지는 87년 이후 조직되는데, 노동청년은 공식적인 모임으로써 ‘노동청년회’와 달리 그 이전부터 교회 내 형성된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27) 전성표(2014년 04월 14일 12:00분~13:30분 면담, 장소: 이웃사랑교회, 면담자 박철), 인태영(2014년 11월 19일 13:10분~14:40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체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대는 가두시위나 집회 등의 형태로 가시화 되었으며 특히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서기노)의 활동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노동자와 활동가는 목회자의 협력을 받아 다양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민중교회가 갖는 다양한 자원들은 기성교회에도 존재했으며, 그 양적인 면에서 더욱 풍부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회인으로 구성된 성도에게 초점을 맞춘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달리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민중, 즉 노동자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었다. 활동가와 노동자에게 자원을 제공한 목회자들의 민중지향성은 에큐메니즘에 근거한 것이었다. 목회자의 이러한 민중지향성이 노동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확보를 가능케 했다.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추구했던 연합과 일치,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사회참여,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이라는 이념적 전통은 자연스럽게 기층 민중인 노동자들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목회자들은 활동가들과 이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 참여적인 다양한 주체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억압받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목회자들을 노동자 대중을 향하도록 이끌었으며, 교회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모으고,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했던 것이다.²⁸⁾ 이렇듯 민중교회에서의 노학연대는 에큐메니즘에 입각한 민중지향적인 목회자의 협력으로 공유한 자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중교회는 사업장 밖에서 노학연대가 가능케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에게 신분보호와, 자유로운 활동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교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민중교회라는 합법적 공간이 주는 안정성은 자유로운 이념과 사상의 교류가 보호되도록 했다. 80년대 학생운동가들이 가진 노학연대의 기대와 필요성에 비해, 그 실제 경험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수미, 2006: 206~208)과

28) 전성표(2014년 04월 14일 12:00분~13:30분 면담, 장소: 이웃사랑교회, 면담자 박철), 임진철(2014년 05월 07일 11:00분~13:1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는 대조적으로, 민중교회는 잘 갖춰진 프로그램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이러한 노학연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민중교회가 노학연대를 지원함으로써 1980년대 노동운동에 갖는 함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중교회는 노동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다. 각종 프로그램들(기타반, 탈춤반, 풍물반, 문학반, 연극반 등)을 운영함(전익상, 1989)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전달했으며, 각종 문화제와 집회를 통해 이러한 학습을 발표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노동문화를 형성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기숙사나 숙소를 벗어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노동운동의 탄압이 ‘노동자’와 ‘활동가’라는 자기 정체성에 위축을 가져오게 했던 시기에, 민중교회에서 형성된 ‘노동청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주체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노동문화의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둘째, 민중교회를 통한 노학연대는 소위 마찌꼬바라고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노동운동에 참여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 학생운동가들이 추구했던 노학연대를 통한 노동운동이 주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그룹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의식화함으로써 노조를 조직하는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민중교회는 구로공단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세계를 변화시키고 의식화를 통한 선진노동자의 형성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중교회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몇몇 노동자들을 선진화시켜 투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목회자와 활동가 간에 갈등이 존재했다. 노창식은 ‘딴 주머니를 찬다’는 표현을 썼다. 이는 활동가들이 목회자도 모르게 전략적으로 몇몇의 노동자들을 의식화 시켜 본인들이 속한 서클에 가입하게 한 뒤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된 노동자들이 교회의 부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교회 내에 다른 노동자와는 물론 목회자들과도 갈등이 형성됐다. 이러한 갈등은 권위주의적 국가의 탄압이 심각했던 정치적 구조 속에서 목회자와 활동가의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현장 운동의 수준에서는 서로 간에 활동과 목표가 달

랐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중교회 또한 1980년대에 흔했던 노학연대에 기반을 둔 노동운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중교회의 활동은 노동자 대중과의 연대가 아니라 소그룹 형태를 통한 제한된 활동으로 소수의 노동자들을 의식화 시키는 데에 머물렀으며 노동운동이 노동자 대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지 못했다는 한계²⁹⁾를 지녔다.

3. 구로지역 민중교회운동연합과 지역연대(지원)운동³⁰⁾

민중교회 목회자들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지향한다. 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여러 부분들과도 함께하는 개방성과 연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⑦: 3). 그리하여 교회 간에는 물론이거니와 활동가들과 노동자들과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위에 형성된 민중교회는 개 교회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 차원의 연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구로지역 민중교회운동연합(구로민교)이라는 지역 연대 조직이 만들어 졌다.

구로민교는 사랑교회 김광훈 목사와 디딤돌교회 강우경 목사가 85년 9월에 2박 3일간 크리스찬아카데미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그들은 서로가 같은 지역에 비슷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밤을 꼬박 새워 가며” 그들이 속한 교단들에 대해 열띤 토론과 비판을 나누는 가운데 강한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당시 인천에 살던 강우경 목사가 86년 2월에 가리봉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 게 되었고, 그해 3월 1일 남부교회, 사랑교회, 디딤돌 교회가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첫 모임을 하게 된다. 4월에는 구

29)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민중교회의 프로그램을 거쳐 간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민중교회를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해서 민중교회가 노동자 대중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지만, 연구자의 한계 때문에 우선 80년대 드러난 표면적 수준에서 민중교회 활동이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30) 1980년대 등장한 지역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1988), 구해근(Koo, 2002), 안승천(안승천, 2002), 이원보(이원보, 2007)을 참고.

로은강교회와 이웃교회, 그리고 신명교회가 함께하여 여섯 교회가 함께 야외예배를 드렸으며, 그해 여름에는 140~50명가량이 모여 ‘총자본’³¹⁾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게 된다.³²⁾ 수련회 이후 86년 가을에 신대방동 돈보스꼬 기술훈련원에서 실시한 체육대회는 일부 교회 내 활동가들에 의해서 가두시위로 활용되기도 했다. 구로민교³³⁾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데, 87년 말에는 10개 교회가 결합함으로써 상당한 조직력과 동원능력을 갖추고 서울지역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구로민교는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서기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력³⁴⁾이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서기노는 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형성된 맹아적인 형태의 지역연대 투쟁을 계승하며 유지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로지역 민중교회들은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견인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다. 초기 창립 회원과 중간에 참여한 민중교회의 활동가들은, 민중교회가 갖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과 구성원으로 융화될 수 있었다. 사업장 지원이나 가두시위를 계획할 때 구로민교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람을 모으는 연결망으로 활용되었다. 무엇보다 일요일에 예배를 위해 모이는 기본적인 인원

31) “이제 거 그 무렵이 그 왜 그 서울노동운동연합 뭐 해가지고 그런 조직들, 구로동에 이제 그런 조직들이 또 많이 있을 때고. 또 민중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데에 이제 관계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때고. 그래가지고 그 주제를 이제 총자본 뭐 이런 주제로 다가 잡아가지고, 진행을, 진행하는 친구들이 잡은 주제죠, 그게.” (강우경 목사 인터뷰)

32)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20030411 강우경 목사 인터뷰 내용.

33) 구로공단에서 민중교회들은 처음에 ‘작은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민중교회’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고 함.

34)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 했다. 서기노 초대 회장인 한명희는 인터뷰에서 민중교회가 아니라 기성교회 산업전도부가 중심이었다고 구술했고, 2대 회장인 신동옥은 서기노는 민중교회와 하나였으며 민중교회가 그 동원력에서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명희의 증언과 달리 민중교회가 86년부터 시작된 서기노의 큰 행사들에 대부분이 참석했으며 같이 활동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지도부의 갈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바 한명희가 실질적으로 87년 5월까지만 서기노 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하고, 앞선 두 사람 외에 정우창과 인태영 및 노항래의 인터뷰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전반적인 경향에 초점을 맞춰 민중교회가 서기노 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개 교회마다 10~20명 정도는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주말에 발생하는 집회와 투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원 세력이 되었다³⁵⁾. 그리고 민중교회는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머물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에 노사 갈등이 생겼을 때 외곽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노동운동을 위한 센터 역할을 했다. 또한 민중교회는 지역노동운동으로써 노동자 집회 장소도 제공했다. 신명교회의 경우 85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 장소가 되었다. 당시에는 노동절 행사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길동 좁은 예배당에 거의 60~70명의 노동자가 모여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³⁶⁾

개별 교회를 벗어나 한층 확대된 조직적인 연대활동도 전개 되었다. 구로민교 노동청년들과 기성교회 산업전도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서기노)은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즉, “집회장소가 변변치 않을 때, 서기노가 집회를 열면 당시 정파나 서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열린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도” 했다.³⁷⁾

1985~86년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지역노동운동을 전개하던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의 활동은 비합법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이어서 이를 지원할 공식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그리고 서노련이 외부적으로는 5·3 인천사태를 계기로 국가 권력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내부적으로는 구성원 간 갈등을 겪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86년 말에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³⁸⁾하게 됨으로써 노동운동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투쟁(집회, 선전물 배포 등)을 담당할 대안적 활동이 요

35)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36) 노창식(2014년 04월 29일 14:30분~16:20분 면담, 장소: 신명교회, 면담자 박철)

37)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38) 서노련과 서기노의 관계에 대해서 한명희는 서노련이 와해되거나 약화된 상황에서 서기노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노련이라는 비합법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과 더불어, 당시 언더서클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해줄 공식적인 활동이 요구됨으로써 서기노가 시작되었다고 구술했다. 이와 달리 신동욱은 서노련의 약화 이후 공개투쟁을 담당할 외곽단체의 필요에 의해 서기노가 형성됐다고 보았다. 서기노가 시작될 86년 당시 서노련 자료들에서 86년 11월 공식적으로 서노련이 해체되었다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서기노 창립의 논의 과정에는 서노련의 비합법적 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당시 서노련의 내적 갈등과 약화에 따른 대안적 활동의 필요성이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서기노)이 설립되게 된다³⁹⁾. 서기노가 창립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활동이 갖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수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⑥).

서기노는 86년 9월 14일 한명희를 초대회장으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4개 교회의 산업전도부(용산, 무학, 도림, 양평동 교회)와 영등포산업선교회⁴⁰⁾가 연합하여 만든 조직이다⁴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①, ⑤).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서기노 지도부와의 갈등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로민교는 87년 중·후반기에 서기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참여하게 되지만, 실질 구성에서 구로민교와 4개 교회의 산업전도부, 그리고 성수동 교회 활동가들과 기독교노동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했다. 서기노는 목회자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활동이었고, 목회자들은 자문위원 형식으로 서기노를 지원했다⁴²⁾(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②, ③).

서기노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을 담당했다. 큰 정기적인 행사, 단위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개별 사건들에 대한 연대가 그것이다⁴³⁾(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⑥). 우선 큰 정기적인 행사들은 봄철 임금인상투쟁, 여름 수련회, 11월 전태일 추모 노동문화제 등이 있었다. 87년 한신대에서 실시한 여름 수련회에는 기독교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문화반, 활동가반, 성경공부반 등을 운영했으며 실무적인 노동법 교육, 노조운영에 관한 교육, 역사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개별 사건들에 대한 지원은 선전 및 홍보물(‘노동자 예수’, ‘일하는 예수’를 발간)을 만들어 배포하는 활동을 통해, 그리고 외부 노동단체와 개별 사업장 투쟁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88년에는 연대투쟁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면서 서울의 경우 멕스테크 위장폐업 분쇄 투쟁, 대원전기, 한국린나이의 공동연대투쟁, 대한광학노

39)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한명희(2014년 11월 15일 21:00분~21:35분 면담, 장소: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전화인터뷰 면담자 박철)

40) 당시에는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성문밖교회로 활동하였다.

41)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42)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43)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조 연대 투쟁, 신애전자, 모토롤라 노동탄압에 대한 연대투쟁 등이 발생(김장한 외, 1989: 258)했는데, 서기노는 서통, 대한광학, 신애전자를 지원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⁴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⑤).

지역노동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의 이러한 활동 외에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점거 농성이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해 목회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의 소외된 노동형태들의 인권확립을 위해’단식기도에 들어갔다. 기도 도중 전경련의 국무회의 보고 내용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날조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1987년 9월 18일 목회자 23명은 전경련 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목회자들은 허위보고에 대한 전경련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주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청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전경련 측은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사복경찰 150명이 투입됨으로써 신고 5분 만에 목회자들이 연행됐으며, 이로 인해 5명의 목회자가 구속됐다⁴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④). 이 같은 사례는 노동운동에 대한 외곽 지원세력인 목회자들이 참가한 지역연대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로민교는 지역노동운동에 있어 중요한 지원세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녔다. 집회나 공식 행사에 민중교회에 속한 활동가들이 그들 조직들을 동원하여 투쟁으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목회자와 활동가간 갈등이 존재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돈보스코 기술수련원에서 체육대회와 같은 친목활동을 활동가들이 가두투쟁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목회자들은 교회를 외피론적 시각에서 이용한다는 이유로 싫어했다. 이러한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구로민교 목사들과 기노련 및 서기노 지도부 간의 갈등도 존재했다. “기노련의 행사가 주로 일요일에 열렸는데, 이러한 행사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려면 교회를 빠지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44) 정우창(2014년 08월 07일 14:00분~16:0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45) 이근복(2014년 04월 15일 15:00분~16:00분 면담, 장소: NCKK 교육훈련원, 면담자 박철), 강우경(2014년 11월 14일 12:30분~14:50분 면담, 장소: 철산역 카페, 면담자 박철)

교회가 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며 목사님들과 갈등’⁴⁶⁾을 겪었다. 민중교회 목회자들이 서기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해준 것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되었지만, 목회자들과 서기노 지도부 사이에는 노동자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활동해야 하지만 외부 노동운동 활동도 해야 하는 양면적 요구에 대한 입장이 달라 갈등도 있었다.⁴⁷⁾ 이러한 갈등은 88년 말 서기노와 1년간의 일상적 관계를 유보한다는 결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⑤)을 통해 외면화 되었다. 이후 서기노는 90년 초에 조직개편을 통해 동부, 산전, 남부(구로민교)의 협의체로 분리하게 된다.

4. 소결: 민중교회와 비합법적 연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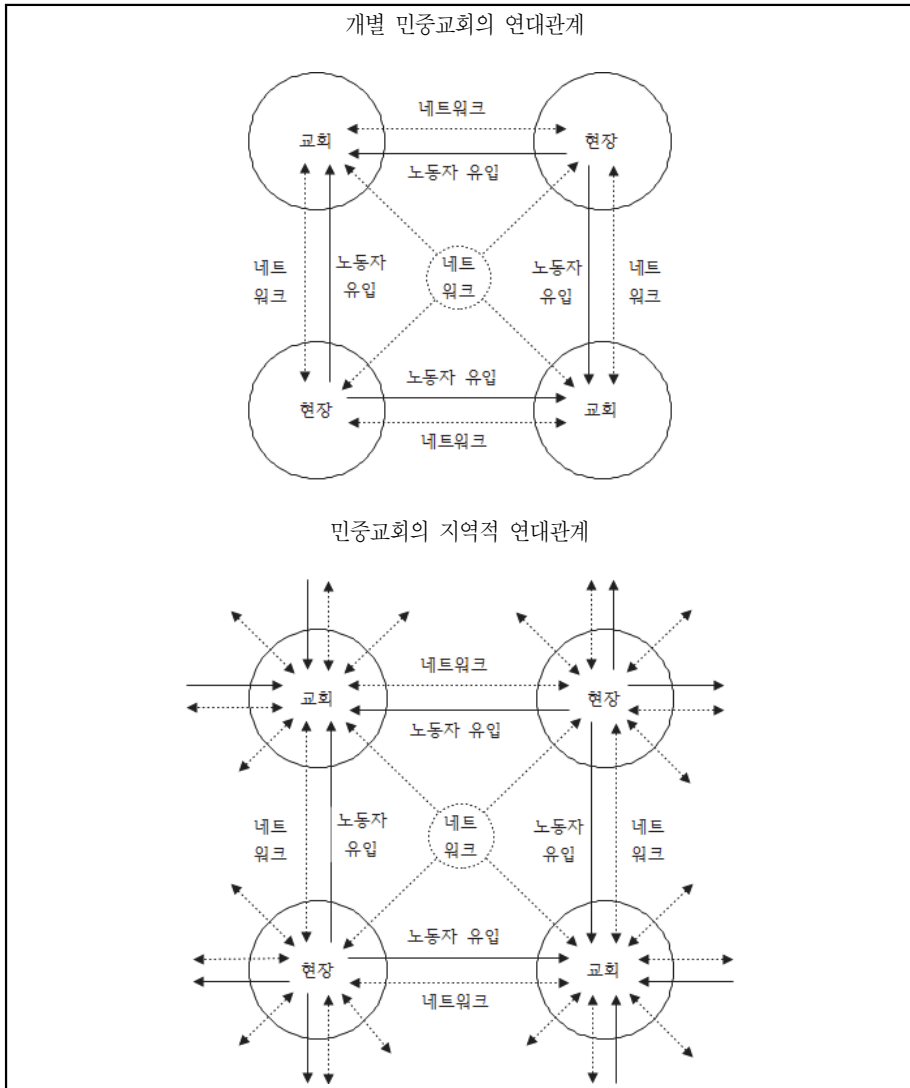
80년대 노동운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적 지향을 갖는 비합법적 연대투쟁이라 할 것이다. 사업장 내 노조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비공식 서클들이 노동자와의 연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업장 간에, 혹은 지역 내에 연대 투쟁을 시도했던 것이다. 민중교회가 80년대 구로지역에서 차지했던 위치는 바로 이러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합법적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민중교회는 80년대 비공식적 지역연대투쟁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적 자원들, 즉 합법적 공간, 인적자원, 정보 및 네트워크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지원은 민중교회 목회자들과 활동가들이 ‘민중’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지향적 운동을 추구함으로써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그림 1>에서 살펴본 민중교회와 현장 간의 관계를 개 교회 범위에서 지역적 범위로 확대하여 재구성해보면 민중교회가 어떻게 비합법적 연대운동을 지원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는 인태영의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46)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47) 정우창(2014년 08월 07일 14:00분~16:00분 면담, 장소: 서울대입구역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면담자 박철), 신동욱(2014년 08월 13일 15:00분~17:00분 면담, 장소: 과천화훼집하장 청향란원, 면담자 박철)

<그림 3> 구로지역 노동현장과 민중교회 관계모델과 그 확장



구로민교 첫 총무를 담당했던 인태영은 구로지역 민중교회들에 속해 있는 활동가들과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있었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들을 교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동원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이

같은 네트워크는 교회와 교회, 현장과 현장 사이에도 존재했는데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노동자를 어느 교회에 보낼지 결정하고, 이렇게 보내진 노동자들을 교육하며, 단위 사업장이나 공단 내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동으로 대처하고, 집회나 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인테영은 구로민교 노동자가 총 700명가량 있었으며, 그중에 교회 수련회나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 노동자가 350여명, 집회나 시위에 적극 가담하게끔 한 사람이 70여명, 그리고 그중에 5~6명을 뽑아 ‘전투조’를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민중교회는 이렇듯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로지역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것이다. 민중교회 운동 초기에 개별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연대 관계는 구로민교를 비롯한 지역 단위의 연합 운동이 발전하면서 지역 노동운동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대 관계로 확산되었다.

민중교회는 에큐메니즘에 기초하여 70년대 기독교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주체들이 졸업 이후 혹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목회자로서 학생운동 외부에서 교회라는 형태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차점이 발생한다. 하나는 학생운동과 기독교학생운동의 관계, 다른 하나는 학생운동과 교회운동의 관계이다.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학생운동, 기독교학생운동, 교회운동이라는 세 가지 위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민중’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함께, 80년대 노동현장에 투신한 활동가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는 ‘표면적 차원’에서의 결합이었으며, 활동가들이 지향하는 혁명론과 목회자로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심층적 차원’에서 차이는 민중교회 내부에서 지속적인 대립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서 민중교회가 갖는 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다툼, 특히 교회 공간과 노동자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민중교회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기능, 특히 1980년대 구로지역 노동운동에 있어 민중교회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민중교회는 1970년부터 80년

으로 이어지는 엄혹한 시대적 상황과 기독교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어져오는 가치인 에큐메니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개혁적 신진 목회자라는 행위 주체가 출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한편으로 민중교회 초기 성원들은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뜻이 맞는 목회자가 필요했고 민중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성원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요구가 접합점을 찾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민중’이라는 노동자를 지향하는 이념을 공유해 목회자와 활동가 간 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중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민중교회는 노동운동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1980년대 구로지역에서 형성된 비공식적 연대투쟁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듯 민중교회는 당시 형성의 발판을 마련했던 연대투쟁의 지원자로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중교회 운동의 한계는 주로 학생운동가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노동자 대중을 변화시키거나 투쟁에 참여하도록 한 효과는 적었다는 점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노동자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나는 노동자의 수가 다른 노동운동 조직이나 집단들에 비해 많았지만, 노동자 대중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추구하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민중교회의 활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점과 더불어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 간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 또한 민중교회가 갖는 한계라 할 것이다. 목회자들과 활동가들은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환경 속에서 ‘민중’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은 표면적인 것이었으며 양측 사이에는 교회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 종종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민중교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 연구의 의의는 민중교회라는 1980년대의 독특한 사회 현상과 노동운동의 관련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를 통해 교회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중교회는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구성원들과 에큐메니즘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목회자의 상호협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민중교회는 초기 형성 과정에서부터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종교의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견해와 달리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종교조직의 성격과 기능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인철. 2012. 『민주화와 종교』. 한신대학교 출판부.
- 강인철. 2013. 『저항과 투항』. 한신대학교.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역. 창작과 비평사.
- 권진관. 2013. “에큐메니칼, 오이쿠메네, 오이코스”. 『새가정』. 10월: 20-24.
- 김경재. 2013. “강원용 목사와 에큐메니칼 운동 - 여해(如海)의 에큐메니칼 사상과 활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실천”. 『기독교사상』. 659: 222-245.
- 김세훈. 1994. “새로운 교회 운동 - 민중교회의 형성과 변화”. 『사회와 역사』. 44호: 244-299.
- 노창식. 1997. “민중교회 목회를 통해 본 민중신학의 과제 모색”.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증 편저. 1992.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기독교서회.
- 안승오. 2011. “에큐메니칼 선교의 ‘선교 개념’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월: 361-385.
- 안승찬. 2002.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박종철출판사.
- 유경순. 2002. “1985년 구로동맹파업의 발생과 노동운동사적 위치”. 『역사연구』. 11: 109-148.
- 유경순. 2012.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유경순. 2013. “1970~1980년대 노동자 저항방식” 『역사문제연구』. Vol.- No. 29: 323-365.

- 은수미. 2006.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 『기억과 전망』. Vol. 15: 199-238.
- 이원보. 2007. 『한국노동운동사-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재호. 1997. “한국민중교회의 어제와 오늘 - 민중교회 목회자 의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익상. 1989. “한국민중교회의 교회론과 그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고찰”. 장로회신학대학. 서울.
- 최중철. 1994. ““민중교회”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경제와 사회』. 권 제24호: 117-203.
-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엮음. 1988. 『한국 노동운동의 이념』. 정암사.
- 황홍렬. 2004. 『한국 민중교회 선교역사(1983~1997)와 민중 선교론』. 한들 출판사.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 ① 한국기독교노동자 서울지역연맹. 생산일자 미상. “서기노 약사”.
- ②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1987.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대의원 대회 회의록”.
- ③ 한국기독교노동자서울지역연맹. 1987. “87년도 활동보고(재편이후) 및 하반기 사업 계획안”.
- ④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외. 1987. “성명서-목사님 23명을 무더기 연행한 현정권의 폭거를 규탄하며”.
- ⑤ 구로지역민중교회 연합. 1990. “서기노 조직체계의 발전적 재편안 및 3.1 현재까지의 결정사항에 대한 배경과 경과”.
- ⑥ 서기노. 1991. “‘91임시 대의원총회”.
- ⑦ 생산자 미상. 198*. “기독교운동과 민중교회”.

<Abstract>

**Minjung Church and Labor Movement of
Guro Area in 1980s
: A Study about The Shaping Process and
Role of Minjung Church's**

Park, Chul and Lee, Chong-Koo

This research is aims to analyze the shaping process and role of Minjung church which had contributed for the development in the labor movement in Guro area. The urban industrial Mission movement which had led the labor movement in 1970s, faced severe oppression so to have ceased to exist as basis of people's movement. As an alternative, progressive young clergy men adopting ecumenicalism and labor activists organized Minjung church. It is the function of Minjung church in Guro industrial area that provided the basis of labor movement and religious community for workers. Comparing to the established churches in main stream denominations emphasizing the size of membership, Minjung church served as a community center for labor activists, workers and poors. The goal of liberation of oppressed people was shared by the Christian groups and labor movement groups. Minjung church provided the shelters sanctuary for underground labor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dark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during 1980s. The features of Minjung church discovered and analyzed in this paper shed light on role and contribution of Christian labor movement based on ecumenicalism, being forgotten in the history of both Korean labor movement and Korean church.

Key words: Minjung church, Labor Movement, Minjung, Ecumenism, Legitimacy